An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Management Performance by Business Categories from the Perspective of Small Business Systematization
영세 소상공인 조직화에 대한 직능업종별 차이분석과 경영성과*

Suh, Geun-Ha(서근하)**, Seo, Mi-Ok(서미옥)***, Yoon, Sung-Wook(윤성욱)****

Abs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successful case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Systematization Cognition by examining their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analysing the factors affecting their success.

To that end, previous studies on the association types of small businesses were studied. A research model was developed, and research hypotheses for an empirical analysis were established upon it.

Suh et al. (2010) insist on the importance of Small Business Systematization in Korea but also show that small business performance is suffering: they are too small to stand alone. That is why association is so crucial for them: they must stand together. Unfortunately, association is difficult, as they have few specific links and little motivation. Even in franchising networks, association tends to be initiated by big franchisers, not small ones. In that sense, association among small businesses is crucial for their long-term survival.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examines how they think and feel about the issue of 'Industrial Classification', how important Industrial Classification is to their business success, and what kinds of problems it raises in the markets.

This study seeks the different cognitions among the association types of small businesses from the perspective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systematization expectation, policy demand level, and management performance. We assume that different industrial classification types of small businesses will have different cognitions concerning these factors.

There are four basic industrial classification types of small businesses: retail sales, restaurant, service, and manufacturing.

To date, most of the studies in this area have focused on collecting data on the external environments of small businesses or performing statistical analyses on their status. In this study, we surveyed 4 market areas in Busan, Masan, and Changwon in Korea, where business associations consist of merchants, shop owners, and traders. We surveyed 330 shops and merchants by sending a questionnaire or visiting. Finally, 268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used for the analysis.

An ANOVA, T-test, and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test the research hypothese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cognition depending upon the industrial classification type.

Restaurants generally have a higher cognition concerning job offer problems and a lower cognition concerning their competitiveness. Restaurants also depend more on systematization expectation than do the other industrial classification types. On the policy demand level, restaurants have a higher cognition.

This study identifies several factors that are contributing to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differences in cognition that depend upon association type: systematization expectation and policy demand level have positive effects on management performance; participation motiv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management performance.

We confirm also that the image factors of different cognitions are linked to an awareness of the value of systematization and that these factors show sequential and continual patterns in the course of generating performances.

In conclusion, this study carrie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its classifying of small businesses into the four different associational types (retail sales, restaurant, services, and manufacturing).

We believe our study to be the first one to conduct an empirical survey in this subject area. More studies in this area will likely use our research frameworks.

The data show that regionally based industrial classification associations such as those in rural cities or less developed areas tend to suffer more problems than those in urban areas. Moreover, restaurants suffer more problems than the norm. Most of the problems raised in this study concern the act of 'associating itself'. Most associations have serious difficulties in associating. On the other hand, the area where they have the least policy demand is that of service typ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argument that associating, rather than financial assistance or management consulting, promotes the start-up and managerial performance of small businesses.

This study also has some limitations. The main limitation is the number of questionnaires.

We could not survey all the industrial classification types across the country because of budget and time limitations. If we had, we could have produced many more useful results and enhanced the precision of our analysi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KRF-2008-327-B00293).

** Concurre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nam College, Korea. E-mail: suhgh@paran.com

*** Professor. Department of Airline and Tourism, Sorabol College, Korea. E-mail: smo@sorabol.ac.kr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A University, Korea. E-mail: weuna@dau.ac.kr

The history of systemization is very short and the number of industrial classification associations is relatively low in Korea. We should keep in mind, though, that this is very crucial to systemization entrepreneurs starting their businesses, as it can heavily affect their chances of success.

Being strongly associated with each other might be critical to the business success of industrial classification members. Thus, the government needs to put more effort and resources into supporting the drive of industrial classification members to become more strongly associated.

Keywords : Industrial classification, participation motivation, systematization expectation, policy demand level, management perform. systematization cognition, systematization effe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사업체 수에서 87.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직능업종별 조직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직능단체의 조직화를 국내 상황에 적합하도록 도소매직능, 음식숙박직능, 개인서비스직능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조직화 참여동기에서 인력구인난에 대한 반응은 음식직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경쟁심화와 자금압박으로 인한 반응은 개인 서비스 직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업종별 직능별로 경영애로사항과 조직화 참여동기에는 차이가 존재함이 새롭게 밝혀졌다. 둘째, 조직화 기대치의 경영공정 개선분야에서는 음식직능이, 단순한 최종성과 개선만을 기대하는 분야에서는 소매직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소상공인 직능별 조직화요인과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참여동기는 소상공인의 재무적인 경영성과에 부(-)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조직화 기대치와 정책수요는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향후 정부에서는 직능단체별로 맞춤형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더불어, 현재 소상공인 조직화는 일천한 상황에 있지만, 최종적으로 창업 성공과 창업 실패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된다는 점을 밝혀주었다.

주제어 : 조직화, 직능별 조직화, 업종별 조직화, 프랜차이즈. 직능단체협회, 공동브랜드, 조직화 기대치, 조직화 정책수요, 소상공인, 경영성과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영업 지원정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대적 전환기에 들어왔다. 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중산층 붕괴방지와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지렛대 축이라는 인식하에서,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 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 진흥원의 양대 기관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하여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영세 자영업 생존지원과 한계 자영업분야의 구조조정이라는 성과를 성취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서근하 등 (2010)의 소상공인 조직화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지원실적은 02‘~09’년 동안 재래시장의 1,550개 상인회 조직을 통하여 1조 281억 원의 예산을 중앙정부(60%), 지방자치단체(30%), 그리고 상인회의 자부담 비율(0%~5%~10%) 한도 내에서 매칭 펀드 또는 전액 무상 지원방식으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시·군·구 등록 상인회와 같이 조직화 형태를 갖추지 못한 전국의 약 267만개의 개별 소상공인 사업체에게는 03‘~09’년 동안 업체별 최대 5,000만원 자금대출 형식으로 3조 2,827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 바가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시설현대화와 금융지원만으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혁신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김판진 등, 2009),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 등과 같은 새로운 경영개선과 같은 정성적인 형태의 지원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유오 등, 2009).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레버리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책 매개체를 소상공인의 조직화, 협업화, 공동브랜드화 3가지로 보고 이중에서 직능업종별 조직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능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체의 가입단체별 경영혁신과 창업성공을 유발하거나 매개하는 조직화와 관련된 변수들이 어떠한 구조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총체적 시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서 연구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직능 업종별로 조직화를 시도하게 되는 참여동기가 무엇인지와, 조직화 활동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와 정책적 지원수요를 규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현실적 의문점의 제기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첫째, 성공한 소상공인들은 어떠한 경영애로 요인으로 말미암아 조직화에 접근하게 되었는가? 둘째, 소상공인들의 조직화사업에 있어서 조직화의 애로요소와 경영혁신에 대한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셋째, 소상공인들의 조직화 기대치와 정책수요는 소상공인 자영업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조직화 참여동기와 기대치가 조직화에 대한 정책적 수요와 경영 혁신전략,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가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등이다. 이러한 직능업종별 조직화의 문제점 분석과 해법에 대한 모색은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의 장단기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267만개의 소상공인 사업체의 교육과 지도 활동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이론적 배경

1. 직능단체의 업종별 이론적 고찰

직능경제인 단체총연합회가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설립되어서, 현재 직능경제인 단체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직능경제인 단체는 국가로부터 승인 받은 290여개 단체가 주축이 된, 기능을 가진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모임으로 구성되어있다. 직능경제인 단체의 탄생 배경은 직능인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법률072002호, 2004)이 제정됨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특별법인의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기존의 경제 5단체와 대등할 정도로 새로운 경제단체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직능경

제인단체 총연합회는 1만여 직능단체와 1천만 직능인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에 매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직능단체들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영세 소상공인 업종을 구분하면 대분류로 서비스산업과 제조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에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업종으로 도소매 직능, 음식·숙박직능, 개인서비스직능 3가지로 구분되어진다. 이러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직능별 업종구분에 대한 대 분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영세 소상공인 업종별 직능분류

대분류	소분류
서비스 산업	도소매 직능*
	음식숙박 직능*
	개인서비스 직능*
제조 산업	제조 직능

* 영세소상공인 직능업종

이러한 직능경제인 단체의 업종별 유형과 정부기관별 소속현황은 다음의 <표 2>의 내용과 같다. 현재 직능단체가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하여 크게 발전하였으나, 최근 들어 저성장의 위기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1960년대의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전자산업, 1990년 IT및 반도체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차역할을 하였지만 최근 들어 수년간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는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국내기업의 공동화 현상과 국내 실업율 증가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그동안 제조산업 성장위주 정책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서비스산업의 전략적인 성장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여기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2005)과 노정구 등(2007)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서비스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을 위하여 구조조정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서비스 산업의 당면한 문제점은 다음의 <표 3>과 같이 밝혀지고 있다. 도소매 직능과 음식·숙박 직능을 포함하

<표 2> 직능 경제인 단체 현황

소속	단체수	사업자 단체
1. 기획재경부	3	21세기 여성CEO 연합,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세무사회
2. 교육과학부	5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지식기반평가연구회, 한국유아체육협회, 창의력개발검정연합회
3. 행정안전부	8	국제경호협회, 한국범죄예방연합회, 한국경비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 한국역술인협회,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한국소방안전협회, 사회안전연구원
4. 문화관광부	40	국제문화친선협회, 한국체력향상협회,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전국음반소매업중앙회, 한국생활체육지도자협회, 민족문화영상협회, 한국공연기획제작자협회,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한국등산중앙회,한국스포츠마사지사총연합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 문화협회, 한국여가레크레이션협회,한구프로사진협회,대한스포츠찬바라협회,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한국무속협회, 한국레크리에이션연합회, 대한경무도협회, 대한공수도협회, 대한당구협회, 독립제작사협회, 전국컴퓨터유기기구유통협의회, 캐릭터디자이너협회, 한국가요작가협회, 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 한국자유기고가협회, 한국요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음악산업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의상협회,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 대한쿵후협회, 대한댄스스포츠연맹, 한국분장예술인협회, 한국비디오작가협회, 한국여성국극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세계태권도협회
5. 농림부	5	한국화원협회, 꽃배달연합회 플라워즈, 한국꽃문화 진흥협회, 한국보호수보존연구회, 한국생약협회
6. 지식경제부	11	한국여성발명협회, 전국문구인연합회,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한국열관리사협회,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한국철스크랩공업협회, 전국우편취급소연합회, 한국정보통신기슬사협회
7. 보건복지부	31	국제발관리총연합회, 한국유흥업중앙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피부미용사회, 대한안마사협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한국방역협회, 대한제과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침구사협회,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페디큐어협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한국조리사회중앙회,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웃사랑후원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장례지도사협회, 한국고시원협회
8. 환경부	5	녹색어머니회중앙회, 국제환경운동연합, 우수재활용제품제조협회, 한국자돋차세정협회,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9. 노동부	5	대한경락사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맞춤양복기술협회, 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 한국기능인쇄업협회
10. 여성가족부	1	한국국제결혼상담협회
11. 건설교통부	1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빌딩산업연합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건축물관리협회, 한국자동차사정협회,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한국물류유통협회
12. 공정거래위원회	1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
13. 청소년위원회	1	한국청소년 보호육성회

자료: 노정구, 김형구 (2007),「부산경제진흥원」

는 서비스산업들은 취약업체들이 상존하면서도, 오히려 진입장벽까지 낮은 관계로 종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외우내환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당경쟁으로 서비스산업이 더욱 치열한 생존경쟁에 직면하게 됨과 동시에 일부 성장가능성이 높은 특정 서비스산업 분야는 블루오션으로 성장 동력의 주축이 되는 심각한 양극화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3> 서비스산업 중 취약업체 비중

단위: 천개, 천명,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취약업체 비중
도소매 직능업종	654	1,537	25.8
음식점 직능업종	606	1.595	'44.9
숙박 직능업종	42	144	50.2
개인서비스 직능업종	151	270	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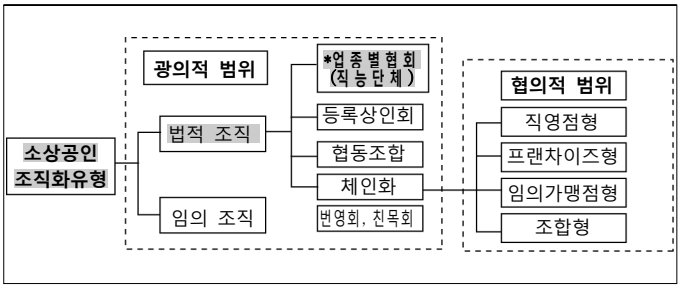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05), 경제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2. 소상공인 조직화의 실태

한국적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더욱 많은 조직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인우 (2007)등 많은 연구자들이 조직화 정책의 태동을 1974년에 1차 석유파동 인한 민생안전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중소상인들의 조직화와 협업화 사업을 시초로 보고 있다. 이후 정부는 1975년에 중소상인조직의 특별 연쇄화 사업에 관한 기준법, 1981년에는 시장법 개정을 거쳐서, 1997년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조직화의 기본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서근하 등, 2010).

영세 소상공인들을 조직화한다면 광의적으로 보면 독립된 점포를 자본 또는 특수한 영업권, 경영지도, 조합 설립 등을 통해 집단화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개별점포를 네트워크화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 하에 살펴보면 소상공인 조직화 유형은 법적조직과 임의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전인우, 2007).

이러한 형태는 업종별 협회, 등록상인회, 협동조합, 체인화, 번영회 및 친목회의 5가지의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체인화의 조직화 특성인 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 임의 가맹점형, 조합형 4가지 형태를 포함하면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 조직화는 8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근거에 의하여 본 연구는 직능단체의 업종별 직능형태 조직화에 대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노정구 등 (2007)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산업의 문제점은 다음의 4가지 문제점으로 요약되고 있다.



자료: 중소기업청 (2004),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그림-1> 소상공인의 조직화 유형

첫째, 타 업종에 비하여 도소매업종 및 음식숙박업종의 높은 비중이다. 둘째는 생계형 창업과 취업에 집중이며, 셋째는 규모의 영세성과 낮은 노동생산성이며, 넷째는 취업인구상의 남녀 불균형이다. 마지막 다섯째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직능단체들의 문제점은 구조적인 측면과 운영상 측면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구조적인 문제점은 일부업종에 대한 편중성과 업종의 성격과 규모의 이질성 그리고 규모의 영세성이다. 한편 직능단체의 운영상 문제점은 열악한 재정상태, 회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공감대형성의 어려움, 마지막으로 낮은 지회와 조직화 전환율로 대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증적인 조사를 하고자 하는 영세 소상공인 운영주체별 유형구분을 직능단체별 가입된 서비스산업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구분으로 도소매 직능, 음식숙박직능, 개인서비스직능으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진다.

이러한 직능단체의 업종별 구분방식은 정부에서 직능단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할 때, 조직화 된 상인들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경영애로와 성공방식들에 대한 차이점 발굴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도 개발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보여진다. 향후 한국의 소상공인 조직화 지원정책은 이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책을 지원하여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조직화를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생각을 못하는 단계이며, 또한 소상공인들이 가입한 직능단체들의 역할도 단순한 정부의 법정교육과 실태조사 대행자의 역할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도 영세 소상공인의 조직화 정책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전국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조직화의 실태조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소상공인 조직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운영주체에 의한 분류를 서비스산업의 3대 업종별 운영조직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보여진다. 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위하여 직능업종별로 경영애로사항과 경영성과에 어떠한 유의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밝혀내면, 정부와 소상공인 지원기관들에게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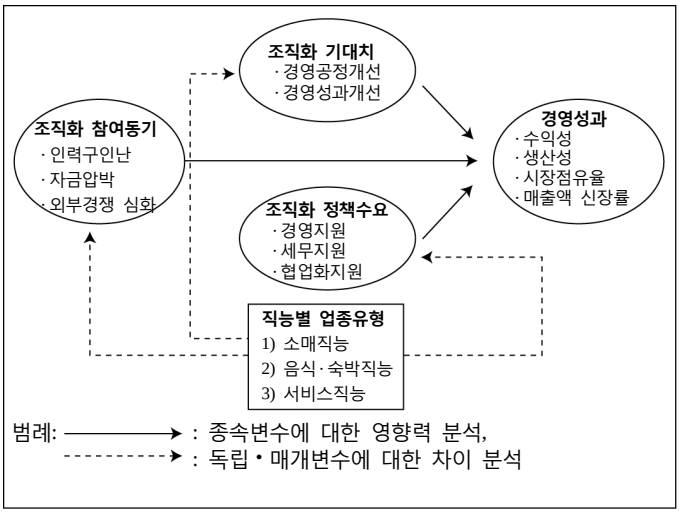
Ⅲ. 조직화 가설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연구문제의 구성에 있어서 조직화 참여동기와 기대치, 정책수요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조직화에 어떠한 특성과 전략을 만들고 있으며, 종속변수인 재무적인 경영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경로구성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조직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인력구인난, 자금압박, 외부경쟁심화 등과 같은 조직화 참여동기별 특성요인들이 조직화 기대치와 조직화 정책수요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것을 포함하여, 조직화의 최종 성과인 경영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조직화 참여동기에 대한 인지적 특성이 조직화의 기대치와 조직화 정책수요에 대하여 업종 유형별로 상호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한 상태에서, 도소매직능, 음식숙박직능, 개인서비스직능의 3가지 조직화 형태를 연구대상에 선정하여 상호관련성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영세 소상공인들의 3가지 직능 별 조직화 유형은 국내 영세 소상공인 사업 환경과 경영자 의식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종속변수인 경영성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1.1. 조직화 참여동기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직능업종별로 조직화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직능업종별로 어떤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인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직능업종별 조직화 참여동기는 조직화 기대치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직단체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가설 1: 직능업종별로, 조직화 참여동기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조직화 기대치

본 연구문제의 검증에서는 직능업종별로 조직화에 대한 기대치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조직단체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직능업종별로 기대치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직능업종별로, 조직화 기대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조직화 정책수요

본 연구에서는 직능업종별로 조직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직능업종별로 어떤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직능업종별로 정책수요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가설 3: 직능업종별로, 조직화 정책수요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조직화 기대치 및 정책수요와 경영성과

소상공인 조직화 참여동기와 더불어 조직화 기대치와 정책수요에 따라서 경영성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에는 어떠한 변수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직능업종별 조직화 참여동기와 기대치, 정책수요는 재무적인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가설 4: 조직화 참여동기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조직화 기대치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조직화 정책수요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의 구성과 측정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수의 구성을 조직화 참여동기에 따른 조직화 기대치, 조직화 정책수요, 경영성과와 같은 개념으로 구성하고, 직능단체별에 가입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조직 의식화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조직화는 많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국내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영향력이 크다고 보여지는 직능단체의 업종유형을 도소매 직능업종, 음식숙박 직능업종, 개인서비스 직능업종 3가지 형태로 축약하였다. 이들 설문은 3가지 형태의 직능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직화 참여동기는 Caruana et al. (1998), Baker (2004), 윤성욱과 박성일 (2008), 김유오 등 (2009)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조직화 참여동기, 기대치, 조직화 정책수요에 대한 경영성과에 어떠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측정방법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된 설문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직화 참여동기는 인력구인난, 자금압박, 외부경쟁심화 사항으로 분류하였다. 인력구인난은 인력부족, 구인난, 인력관리기법 부족 등으로 질문하였고, 자금압박은 자금부족, 영업실적 저조여부를 평가하였으며, 마지막 외부 경쟁심화는 과당경쟁, 대형점 입점, 마케팅 역부족 등에 대한 인식정도를 측정하였다. 조직화 기대치는 조직화의 최종 결과의 기대치로 볼 수 있는 조직화 최종성과에 대한 기대인식치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기대 인식치는 경영공정 개선으로 조직화된 영세 소상공인들이 사업체 운영에 있어서 경영공정을 프로세스 차원에서 변화되어 질 것으로 기대하는 그룹과 단지 최종적인 경영성과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경영공정개선 기대는 품질경쟁력, 비용절감 기법, 공급과잉 해소차원, 가격 경쟁력 해소차원에 대한 측정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인 경영성과개선 기대는 매출증대, 수익성 증대,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치 항목으로 질문 문항을 설계하고 반응을 측정하였다.

조직화 정책수요는 세 가지 범주를 나누어 질문하였다. 첫째, 운영지원은 전문 인력 지원, 교육훈련지원, 각종 이벤트행사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세제지원은 법인세지원, 매입· 매출 공제, 인사 및 노무관리 지도, 세무업무 매뉴얼지도 등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협업화는 공동점포 운영지원, 공동거래행위, 업무 및 정보공유화 등으로 나누어 질문하고, 지원받고 싶은 수준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소상공인의 조직화 유형은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지도·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3개 소매, 음식, 서비스 직능별 조직화 형태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직화의 경영성과는 소상공인 사업체를 경영한 재무적 성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재무적 성과는 동종 사업체에 대비한 매출액신장률, 시장점유율, 투자수익성, 생산성을 각각 한 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한 상태에서 실제 증가율을 측정한 후, 등간척도로 전환하여 경영성과 단일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의 재무실적을 측정하기에 현실상으로 어려움이 많은 과제이므로, 재무적 성과분석을 등간척도를 사용하여 소상공인 최고경영자의 주관적 평가로 측정하도록 하여 설문의 신뢰성을 높였다(서근하 등, 2010).

IV. 실증분석

1. 분석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소상공인들의 조직화 참여동기가 직능업종별로 어떠한 조직화 기대치와 정책수요에 대한 매개변수와 조직화 전략을 만들 수 있으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업종별 직능단체에 가입과 같은 노력들이 소규모 점포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2010년 8월에 부산과 경상남도 창원, 마산지역에 있으면서, 직능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사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 중심상권 3군데를 선정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앞에서 제시한 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각 변수에 대한 적절한 문항을 배치하여 작성하였다. 직능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사업체의 발굴과 설문답변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조사요원은 해당지역별로 사업체 현황을 사전에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사업체 통계조사요원들 중에서 선발하였다. 이들이 직능단체에 가입한 영세 소상공인과 직접적인 인터뷰방식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함께 작성하는 방식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배부한 설문지는 총 330부였으며, 이 가운데 290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서 설문지의 응답이 성실하지 못한 응답자는 제외한 총 268부가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에 이용되었다. 설문구성은 직능단체에 가입한 영세소상공인들의 조직화에 대한 의식을 물어보기 위하여 사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조직화 참여동기, 기대치, 정책수요, 정부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정부정책과 영세 소상공인 조직화에 필요한 요소들을 선정하고, 그 중요성 여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 패키지로 SPSS/PC 15.0을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과 ANOVA,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2. 실증분석 결과

2.1. 표본 자료와 특성

분석에 사용된 268부의 응답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성별분포는 여자에 비하여 남성의 비율이 70.5%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 및 대졸(66.8%)이 소상공인 학력비율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30세-39세가 37.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남녀 및 연령에 대한 비율이 인구 통계적으로 조직화를 이해하고 또한 조직화 활동을 하는 영세 소상공인 직능업종별 사업체 경영자 비율측면에서 편의 없이 표본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본기업의 조직화 가입단체별로 비율과 표본기업들의 업종별 분포는 다음의 <표 5>의 구성과 같다.

<표 4> 조직화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 수	개 수	퍼센트 (%)
응답자의 성별		
남	189	70.5%
여	79	29.5%
응답자의 학력 수준		
고졸이하	79	29.5%
전문대및 대졸	160	66.8%
대학원졸	10	3.7%
응답자의 연령		
만 20세	20	7.5%
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100	37.3%
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	18.7%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59	22.08%
만 60세 이상	39	14.65%
총 계	268	100.0%

<표 5> 표본기업의 분포별 규모

조직화 가입 단체	표본 기업의 수	비율 (%)
1) 소매 직능업종	160	59.77%
2) 음식숙박 직능업종	40	14.9%
3) 개인서비스 직능업종	68	25.4%
총 계	268	100.0%

2.2.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연구문제에 의하여 제시된 조직화의 분류 형태로 나누어지는지 살펴보고, 또한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능업종별 조직화 실태 측정문항은 <표 6>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조직화의 참여동기와 조직화 기대치와 정책수요에 따르는 요인들은, 연구문제에서 제시한 분류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내적 일관성의 검증은 Cronbach's α값으로 검증하였으며,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성분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kaiser 정규화가 있는 직각회전(varimix)방식을 방식에 의해 고유값 1이상인 요인만을 선택하였으며 요인적재량 0.5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표 6>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외생변수

구분	변수항목		요인 부하량			연구단위 신뢰도 (Cronbach's α)
	잠재변수	관측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조직화 참여동기	인력구인난	DIF4	.827	.163	.026	.87
		DIF3	.800	-.043	.192	
	자금압박	DIF6	-.115	.838	.165	.90
		DIF7	.205	.682	.403	
		DIF5	.532	.666	-.205	
	외부경쟁 심화	DIF1	-.106	.327	.790	.87
		DIF2	.440	-.034	.726	
분산율(71.930%)			36.890	20.032	15.008	

<표 7>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내생변수

구분	변수항목		요인 부하량						연구단위 신뢰도 (Cronbach's α)
	잠재변수	관측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조직화 기대치	공정개선	OREF1	.277	.886	.282	.044	-.027	.133	.84
		OREF2	.051	.812	.338	-.017	.060	-.161	
		OREF4	.527	.740	.122	.068	.066	-.103	
		OREF5	.161	.732	.420	.302	.080	-.195	
	경영성과 개선	OREF7	.064	.215	.950	-.084	-.002	.056	.80
		OREF8	.070	.193	.949	-.107	.093	-.031	
		OREF9	-.036	.412	.877	-.102	.169	.051	
정책 수요	운영지원	ORPO1	.034	.115	-.248	.869	-.142	.169	.83
		ORPO3	.156	.059	-.018	.752	.001	.337	
		ORPO4	.270	-.147	-.057	.600	.096	.546	
		ORPO5	-.270	.413	-.099	.580	-.001	.302	
	세제지원	ORPO7	.078	.011	.048	.256	.909.	.255	.87
		ORPO8	.051	.099	.068	.109	.809	.539	
		ORPO9	.090	.079	.027	.638	.736	.098	
	협업화 지원	ORPO10	-.018	-.107	.023	.256	.428	.860	.85
		ORPO12	-.329	-.106	.051	.288	.253	.830	
경영성과	수익성	PERF1	.926	.121	-.177	.081	-.027	.007	.83
	생산성	PERF2	.910	.062	.069	-.221	.060	-.056	
	시장점유율	PERF3	.902	.121	.165	.113	.066	-.008	
	매출신장율	PERF4	.738	.360	.100	.310	.080	-.159	
분산율 (91.375%)			32.061	27.456	15.816	8.609	3.940	3.489	

조직화 기대치 관련 7개 항목이 2개요인, 조직화 정책수요 9개 항목이 3개 요인으로 각각 분류되었으며, 조직화 참여동기는 7개 항목이 3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추출된 요인들의 총분산은 종속변수와 기대치와 정책수요 요인들은 91.3%, 참여동기 요인은 71.9%로 나타났으며, 아이겐 값은 독립변수는 3.21,2.15,1.35 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는 6.21,5.23,4.32, 3.21,2.14,1.82으로 나타났다. 타당성 검증을 한 결과 <표 6>과 <표 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적재값 중 최저값은 .66로 높게 적재되어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의한 공통요인의 신뢰성은 Cronbach'α 계수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위 <표 6>과 <표 7>의 Cronbach'α 신뢰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별요인을 구성하는 항목에 의하여 Cronbach'α 값은 모두 0.8이상이거나 0.9에 근접하므로서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3. 실증분석 결과

표본기업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세 가지 유형의 직능화 업종별 유형을 토대로 조직화실태와 결과에 대한 분석하였다. 각 연구문제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직능업종별로 조직화 참여동기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1 에서 설정한 직능업종별로 조직화의 참여동기인 인력

<표 8>직능업종별 조직화 참여동기 분석결과

(가) 조직화 참여동기에 대한 분산분석

		제곱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인력 구인난	집단-간	93.053	2	45.527	48.046	.00
	집단-내	256.621	265	.968		
	합 계	349.674	267			
자금압박 요인	집단-간	28.109	3	9.370	18.083	.00
	집단-내	122.281	236	.518		
	합 계	150.319	239			
외부 경쟁심화	집단-간	16.144	2	8.072	11.824	.00
	집단-내	180.904	265	.683		
	합 계	197.040	267			

(나) 조직화 참여동기에 대한 다중비교

	사후검정	(I)소속한 조직형태 (평균)	(J)소속한 조직형태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인력 구인난	사후검정 Dunnett T3	소매업 (2.75)	음식·숙박업	-1.12*	.14	.00
			개인서비스업	-1.24*	.10	.00
		음식·숙박업 (3.87)	소매업	1.12*	.14	.00
			개인서비스업	-.11	.11	.68
		개인서비스업 (3.23)	소매업	1.24*	.10	.00
			음식·숙박업	.11	.11	.68
외부경쟁 심화	사후검정 Dunnett T3	소매업 (3.37)	음식·숙박업	.12	.19	.88
			개인서비스업	-.57*	.10	.00
		음식·숙박업 (3.25)	소매업	-.12	.19	.88
			개인서비스업	-.70*	.18	.00
		개인서비스업 (3.95)	소매업	.57*	.10	.00
			음식·숙박업	.70*	.18	.00
자금압박 요인	사후검정 Dunnett T3	소매업 (3.37)	음식·숙박업	.25	.11	.08
			개인서비스업	-.47*	.11	.00
		음식·숙박업 (3.12)	소매업	-.25	.11	.08
			개인서비스업	-.72*	.12	.00
		개인서비스업 (3.85)	소매업	.47*	.11	.00
			음식·숙박업	.72*	.12	.00

구인난, 자금압박요인, 외부 경쟁심화의 3개 요인에 있어서 각 항목별 참여동기의 차이점을 알기위해서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상공인 정부정책 지원 결정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매, 음식, 서비스 직능업종 형태를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조직화 참여동기에 대하여 인력구인난, 자금압박요인, 외부 경쟁심화 수준의 집단간에 평균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직능 업종별에 따라 조직화 참여동기 3가지 요인 중에서 인력구인난, 자금압박요인, 외부 경쟁심화에 대하여 평균차이가 존재함이 <표 8>의 내용과 같이 밝혀졌다.

인력구인난 반응에서는 음식직능이 가장 높은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종은 가족단위 및 자급자족의 경영형태를 가지는 특징으로 인하여, 인력구인난에 있어서 서비스직능과 음식직능에 대하여 평균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외부 경쟁심화에서는 개인서비스 직능이 가장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서비스 직능은 소규모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창업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소매직능과 음식직능에 비하여 평균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금압박요인은 서비스 직능이 가장 높은 애로 형태를 보여주었다. 음식직능은 일일 대면 판매 및 현금판매 및 일회성의 채무관계 거래종결의 특성으로 인하여 타 직능업종에 비하여 모두 평균치가 낮으며, 가장 자금애로를 적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직능업종별 인력 및 조직구조의 특성으로 인하여 경영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설 2: 직능업종별로, 조직화 기대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2 에서 설정한 직능업종별로, 조직화 기대치에 대한 유

<표 9>직능업종별 조직화 기대치 분석결과

(가) 조직화 기대치에 대한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경영공정 개선	집단-간	7.195	2	3.598	10.589	.000
	집단-내	90.033	265	.340		
	합 계	97.229	267			
최종성과 개선	집단-간	72.124	2	36.062	54.346	.000
	집단-내	175.844	265	.664		
	합 계	247.968	267			

(나) 조직화 기대치에 대한 다중비교

	사후검정	(I)소속한 조직형태 (평균)	(J)소속한 조직형태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경영공정 개선	사후검정 Dunnett T3	소매업 (2.87)	음식·숙박업	-.12	.07	.24
			개인서비스업	.33*	.09	.00
		음식·숙박업 (3.00)	소매업	.12	.07	.24
			개인서비스업	.46*	.09	.00
		개인서비스업 (2.53)	소매업	-.33*	.09	.00
			음식·숙박업	-.46	.09	.00
최종성과 개선	사후검정 Dunnett T3	소매업 (2.81)	음식·숙박업	1.47*	.10	.00
			개인서비스업	.09	.10	.73
		음식·숙박업 (1.33)	소매업	-1.47*	.11	.00
			개인서비스업	-1.38*	.11	.00
		개인서비스업 (2.72)	소매업	-.09	.10	.73
			음식·숙박업	1.38*	.11	.00

의한 평균차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가설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화 기대치를 경영공정 개선과 최종성과개선 2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기대치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경영공정 개선 기대치분야에서는 음식직능이, 단순한 최종성과 개선 기대치 분야에서는 소매직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음식직능은 종업원관리부터 주방설계와 메뉴 개발 등 다양한 공정을 개선하여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분야인 관계로 공정개선에 대한 조직화 기대치를 가장 높게 나왔으며, 소매직능은 고객에게 판매증가만으로도 경영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인식의 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 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단순한 최종성과 기대치 인식의 배경에는 소매직능의 경영개선의 본질이 단순한 자금지원만으로 되는 분야가 아니고, 대규모의 자금투자를 동반하는 정부정책 차원에서, 물류창고 설치와 배송시스템 그리고 바코드 운영 등 다양한 문제점을 유통경로상황에서 해결하여야 하며, 현실적 상황에서 개별 소매업자가 직능단체에 가입한다고 해결이 될 분야가 아니라는 안타까움도 함께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가설 3: 직능업종별로, 조직화 정책수요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3 에서 설정한 직능업종별로 조직화정책수요인 운영지원, 세제지원, 협업화지원의 3개 요인에 있어서 각 항목별 정책수요의 차이점을 알기위해서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운영지원, 세제지원, 협업화지원 수준에서 조직화 유형 집단에 따라 정책수요에 차이가 나타나 H3의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10>직능업종별 조직화 정책수요 분석결과

(가) 조직화 정책수요에 대한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운영 지원	집단-간	32.142	2	16.071	14.526	.000
	집단-내	293.196	265	1.106		
	합 계	325.338	267			
세제 지원	집단-간	42.557	2	21.278	17.629	.000
	집단-내	319.863	265	1.207		
	합 계	362.420	267			
협업화 지원	집단-간	22.368	2	11.184	16.193	.008
	집단-내	183.029	265	.691		
	합 계	205.396	267			

(나) 조직화 정책수요에 대한 다중비교

	사후검정	(I)소속한 조직형태 (평균)	(J)소속한 조직형태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운영지원	사후검정 Dunnett T3	소매업 (3.87)	음식·숙박업	-.54*	.13	.00
			개인서비스업	.56*	.16	.00
		음식·숙박업 (4.41)	소매업	.54*	.13	.00
			개인서비스업	1.10*	.17	.00
		개인서비스업 (3.31)	소매업	-.56*	.16	.00
			음식·숙박업	-1.10*	.17	.00
세제지원	사후검정 Dunnett T3	소매업 (3.95)	음식·숙박업	-.62*	.14	.00
			개인서비스업	.64*	.16	.00
		음식·숙박업 (4.58)	소매업	.62*	.14	.00
			개인서비스업	1.26*	.18	.00
		개인서비스업 (3.31)	소매업	-.64*	.16	.00
			음식·숙박업	-1.26*	.18	.00
협업화 지원	사후검정 Dunnett T3	소매업 (3.93)	음식·숙박업	-.56*	.10	.00
			개인서비스업	.37*	.14	.03
		음식·숙박업 (4.52)	소매업	.56*	.10	.00
			개인서비스업	.94*	.15	.00
		개인서비스업 (3.55)	소매업	-.37*	.14	.03
			음식·숙박업	-.94*	.15	.00

정책수요에서 음식직능은 모든 수요에서 가장 높은 수요를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영공정 개선 기대치에서 가장 높은 기대치를 가진 사항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반하여 서비스직능은 정책적 수요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는 맛집과 한식의 세계화 추진 프로젝트 등 프랜차이즈[1] 유명식당으로 구분되는 음식직능과, SSM에 대항하여 나들가게와 같은 공동 브랜드(joint brand) 지원정책[2]등으로 조직화 및 브랜드를 하여야 하는 소매직능에 비하여, 개인서비스 직능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현재 정부에 요구하여야 할 뚜렷한 이슈가 없는 초기상태의 직능조직임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를 바라볼 때 정부에서도 개인서비스업을 과잉경쟁분야로 신규창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반증의 결과로 보인다.

1) 중소기업청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객관적 수준 평가를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실시하고, 선정된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하여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향후 2012년까지 가맹점 1000개 이상을 보유한 브랜드 100개를 육성하고 세계 100대 프랜차이즈에 토종 브랜드 3개 이상을 진입 시킬 계획이다. 우선 수준평가는 가맹본부의 특성(경영자, 기업, 자원, 계약절차)과 계약특성(계약조건, 가맹점 통제) 등 6개 범주를 기준으로 기업단계에 따라 자금지원에서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고자 한다.

2) 현재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공동브랜드를 제작하여 SSM (기업형 슈퍼마켓)과 프랜차이즈 체인에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경영기법이다. 대표적으로 스마트샵 (공동 브랜드명: 나들 가게)정책으로 들 수 있다. 육성목표는 나들가게 **1만개 점포**('10년 : 2천개 → '11년 : 4천개 → '12년 : 4천개)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표 11> 조직화 요인에 따른 경영성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계량 변화량				다중공선성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VIF
경영성과	(상수)	1.938		5.72	.00		
	조직화 참여동기	-.549	-4.75	-8.67	.00	.905	1.10
	조직화 기대치	.395	.308	5.69	.00	.925	1.08
	조직화 정책수요	.259	.283	4.97	.00	.840	1.19

* R^2 = 0.28

가설 4: 영세 소상공인 조직화 참여동기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영세 소상공인 조직화 기대치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영세 소상공인 조직화 정책수요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영전략들은 경영성과에 대하여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통하여 다양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가설 H4, H5, H6 에서 제시한 소상공인 조직화 참여동기, 조직화 기대치 그리고 조직화 정책수요에 따라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 H4, H5, H6 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조직화 참여동기, 조직화 기대치 그리고 조직화 정책수요가 동종 사업체에 대비한 매출액신장률, 시장점유율, 투자수익성, 생산성과 같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영성과의 4가지 변수들에 대한 평균값을 재 코팅하여 단일요인으로 구성하여 조직화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인 경영성과와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11>과 같이 조직화 변수는 최종적인 종속변수인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4는 기각되었으며 가설 H5, H6 은 채택되었다.

가설 H4 는 조직화 참여동기는 소상공인의 재무적인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부(-)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4 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화 참여동기는 경영이 힘들수록 조직화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역설적으로 평소에 경영이 어려운 집단이 단순히 어는 한 순간에 경영혁신을 쉽게 이루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와 반대로 가설 H5, H6인 조직화 기대치와 조직화 정책수요는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5, H6은 채택되었다.

Ⅴ. 결론 및 전략적 시사점

1. 연구결과 및 전략적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의 사업체 중에서 87.4%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조직화에 대하여 어떠한 동기로 참여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조직화 기대치와 정책수요가 창업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상공인들의 조직화 참여동기, 그리고 조직화를 참여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조직화 기대치, 정책수요에 대하여 실증적인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소상공인의 직능 업종별에 따라서 조직화에 대한 참여동기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화 기대치와 정책지원 수요와 더불어서 경영성과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적인 경영과 상호시너지 극대화가 시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 업종별 직능단체들의 회원업체 지원활동의 확대와 정부의 지원정책을 개발하는데 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보여진다. 또한 분석방법도 소상공인의 이분적인 사고방식으로 창업성공과 창업실패를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직화 참여동기에 있어서 한국의 소상공인들은 조직화에 참여하는 동기가 인력구인난, 자금압박, 외부경쟁심화 등에 대한 돌파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인력구인난 반응은 음식직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매업종은 서비스직능과 음식직능에 대하여 평균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외부경쟁심화와 자금압박은 개인서비스 직능이 가장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업종별 직능별로 경영애로사항이 차이가 있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둘째, 소상공인들이 조직화에서 얻고자 하는 기대치를 경영공정 개선과 최종성과개선 두 가지 연구문제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적 상황에서는 경영공정 개선분야에서는 음식직능이, 단순한 최종성과 개선만을 기대하는 직능에서는 소매직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책수요에서 음식직능은 모든 분야의 수요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하여 서비스직능은 정책적 수요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는 개인서비스 직능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현재 정부에 요구하여야 할 뚜렷한 이슈가 없는 초기상태임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지며, 향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인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보여준 반증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셋째, 직능업종별로 조직화 참여동기, 기대치, 정책수요가 동종 사업체에 대비한 매출액신장률, 시장점유율, 투자수익성, 생산성과 같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직화 참여동기는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부(-)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화의 참여동기인 경영 곤란성이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으로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와 반대로 조직화 기대치와 조직화 정책수요는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들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설명력인 R^2는 0.28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의의를 요약하여 보면, 현재 소상공인

조직화 수준은 일천한 상황에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창업 성공과 창업 실패를 구분하는 요소중의 하나임이 밝혀졌다. 향후 소상공인 성공창업과 불황극복 지원을 위해서는 업종별 직능단체에 대한 장단점과 정책수요의 차이점을 감안한 맞춤형 조직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2. 연구의 공헌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의 조직화에 관한 연구에서 소상공인 분야로 더욱 세분화시켰으며, 소상공인 조직화를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 업종별 직능단체로 구분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내실정에 맞는 직능업종별 조직화에 대한 인식과 차이점, 그리고 이들 변수들이 최종적으로 창업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대한 실증적 모델을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소상공인 조직화 분야의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을 토대로 하여 향후 직능업종별 조직화에 대한 발전방향과 성공요인들을 심도 있게 살펴 볼 수 있으리라 본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직능 단체의 본부에 대한 조직화의 인지척도와 수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면, 연구의 정밀도는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Received: May 16, 2011.
Revised: May 31, 2011.
Accepted: June 10, 2011.

References

김유오, 지해명, 윤명길 (2009),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유통방안 소고”, *유통과학연구*, 제7권 4호, 37-45.

김판진, 김경조, 남궁석, 윤명길 (2009),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도에 관한 연구”, *유통과학연구*, 제7권 1호, 55-70.

노정구, 김형구 (2007), “부산지역 직능경제인 단체 실태조사”, 부산경제진흥원.

서근하 (2007), “한국의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적 생존과 경영혁신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성장 동력”, *중소기업연구*, 제29권 제4호, 265-293.

서근하, 서창수, 윤성욱 (2010), “한국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체인인식도에 관한 정책지원 모델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2권 제3호, 155-175.

윤성욱, 박성일 (2008),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창업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사의 시장지향성과 가맹점 관계몰입의 매개효과”, *유통연구*, 제13권 제3호, 126-154.

윤성욱, 신진교, 서근하 (2008), “한국 자영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구조적 특성이 경영몰입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 연구*, 제11권 제2호, 67-89.

전인우, 유정식, 최성호, 이창민, 윤성미 (2005)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전인우 (2007), “소상공인의 조직화, 협업화 모델제시와 정책방향”, 중소기업연구원연구보고서.

중소기업청 (2009),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계획”,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05), “경제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Allen, Natalie J. & Meyer, John P. (1990), “The Measurement and Antecedents of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3(1), 1-18.

Audretsch, D. & Thurik, R. (2004), “A Model of the Entrepreneurial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2(2), 143-166.

Baker, D. Rivers (2004), “The Entrepreneurial Economy: A White Paper,” *The MicroEnterprise Journal*, October, 1-23.

Caruana, A., M., Morris H. & Vella, A. J. (1998), “The Effect of Centralization and Formalization on Entrepreneurship in Export Firm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6(2), 16-29.

Covin, J. G. & Slevin, D. P. (1988),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 Structure on the Utility of Entrepreneurial Top Management,”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25, 217-234.